일본의 시각에서 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고이즈미 유

도쿄대 첨단과학기술연구센터 전임강사

Ⅰ. 서론

이 장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일본의 시각에서 논해보고자 한다. 전반부에서는 주로 군사적 관점에서 이번 전쟁이 어떠한 성질(nature)을 띤 것인지에 대해 고찰한다. 후반부에서는 전반부에서의 고찰을 바탕으로 일본의 안전보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Ⅱ. 거대 전쟁으로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번 전쟁에 관해서 주목되는 것은 규모가 큰 두 개의 국가가 병력을 전면적으로 투입해서 싸우고 있다는 것이다. 구 소련 15개국의 면적, 인구, GDP 등을 비교해보면 압도적 1위는 러시아이지만, 많은 지표에서 우크라이나가 2위다. 군사력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번 전쟁은 구 소련의 첫 번째, 두 번째 대국이 전면적으로 벌이는 전쟁인 것이다.

더구나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에 개입했을 때와 달리 정규군을 대규모로 투입했다. 러시아군이 평소와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것에 대해서는 개전 전부터 지적되었다. 이번 전쟁에서는 개전 이전부터 각국 연구기관이 상업위성(광학 및 합성 개구 레이더)을 활용해서 러시아군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다. 우리 연구그룹도 같은 방법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에 집결하고 있는 모습을 상당히 명료하게 관찰할 수 있었다. 보통 사용하지 않는 예비 비행장에 공격용 항공기나 헬기가 빼곡하게 전개되어 있는 모습이나 야전병원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 주둔지 주변에 천막촌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 등이다.

또한, 철도로 전차가 운반되는 모습을 주변 주민이 촬영한 TikTok 동영상

을 모아 분석해보면 어느 부대가 언제, 어디를 지나 이동했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 그러자 극동의 동부군관구나 시베리아의 중앙군관구 부대가 아주 먼 벨라루스 등 우크라이나 주변까지 대거 이동하여 집결되어 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필자는 러시아군의 대규모 연습을 15년 정도 매년 관찰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대규모 병력 이동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다. 저 넓은 러시아 전국에서 병력을 모아 우크라이나로 침공해갔던 것이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도 전군을 동원하고, 나아가 개전 직후 총동원령을 발령했다. 우크라이나공화국군은 평시 19만 6천명 정도였는데, 이번 전쟁에서는 정규군 이외에 동원된 민간인을 중심으로 조직된 영토방위대, 나아가 내무성의 국가친위군이나 경찰, 외국인 의용군 등을 포함하면 100만 명의 병력으로 대항하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도 당초 병력만으로는 대항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민간군사회사 '와그너', 코사크, 체첸군 등을 끌어 모으고 2022년 9월에는 30만명의 부분 동원을 단행했다. 위성 화상(畵像)을 보면 시베리아·극동의 무기 보관기지에서 전차, 장갑차, 유탄포 등이 작년 여름 이후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낡은 무기를 실제로 사용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두 소련의 후계 국가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는 군사적인 제도가 일본보다 훨씬 더 사회에 침투되어 있다. 또한 실제로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는 항상 어디선가에서 전쟁을 해왔기 때문에 군사와 사회의 거리가 매우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14년부터 러시아와 전쟁 상태에 있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다. 이 점은 언제나 고도의 군사적 긴장 하에 있는 한국과 어느 정도 유사할지도 모른다.

Ⅲ. 부활한 대전쟁

이번 전쟁이 시작되기 전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가맹국에서는 국가 간 전쟁은 이제는 과거의 일이며, 특히 유럽은 그것과는 무연한 곳이라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렇지만, 그것이 눈 앞에서 무너졌다. 그 충격은 유럽 사람들에게는 컸다.

이번 전쟁에 등장하는 지명을 보면 80년 전 제2차 세계대전과 아주 유사하다. 예를 들면, 1943년 독소 간의 쿠르스크 대전차전의 격전지였던 프로호롭카라는 장소가 다시 등장했다. 대전 당시 독일의 중전차와 현재 러시아군의 주력전차는 거의 같은 중량이다. 전차가 행동할 수 있는 장소나 보급 장소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마치 80년 전의 역사에 복수당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그것은 우크라이나 점령지역에서의 러시아군의 행동을 봐도 느낄 수 있다. 100년 전, 200년 전 군대의 만행이 아니라 2020년대에 현대 러시아군이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하고 성적 학대를 가하고 가재도구를 약탈하고 있다. 인류는 80년 전의 전쟁에서 교훈을 얻어 그러한 전쟁이 일어나기 어렵도록 노력해왔지만, 결국은 완전히 억제할 수 없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자 거기서 인간이 하는 일은 그다지 바뀌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역사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가 대학에서 교육을 받았던 2000년대의 국제관계론에서는 냉전이 끝나 국제질서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인식이 강했다. 경제나 환경, 인권이 국제관계의 기조가 되고, 국가와 국가의 관계만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대 기업이나 NGO 같은 행위자나 국가를 초월한 지역 단위의 경제관계를 중시하는 논의가 활발했었다. 그러나, 그런 반면 19세기적인 국제질서나 국가 간의 대규모 전쟁의 위험이 완전히 과거의 일이 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번 전쟁

에서는 여전히 국민국가가 국제관계의 중심에 있다는 것, 그리고 국가 간에는 여전히 대규모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다고 생각한다.

Ⅳ. 전쟁의 '특징'과 '성질'

물론 전쟁에서 개별적 특징(character)은 변화한다. 과거 500m거리에서 싸웠던 전차가 2000m에서도 싸울 수 있게 되었고, 시속 700km밖에 되지 않았던 전투기가 지금은 마하 2.5로 날아간다. 그러나 적 야전군을 격멸시켜 토지를 점령하고 자신들의 의지를 상대에 강요하는 전쟁의 근본적인 성질(nature)은 변하지 않았다.

세계사에서 전쟁의 성질이 바뀔 때가 몇 번 있었다. 전쟁에서 적을 철저하게 이겨 상대를 복종하게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근대 이전의 전쟁에서 그런 것은 불가능했다. 군대는 군주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싸워 손해가 커지면 곤란했으며, 산업도 재정기반도 취약했기 때문에 스스로 국가를 위해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돈을 들여 만든 소규모 군대를 잘 사용해서 하는 일종의 의식처럼 치러졌던 것이다.

그런데, 18세기 프랑스에서 이것이 크게 바뀌었다. 자신들을 '국민(nation)'이라고 자각한 사람들로 구성된 거대한 군대가 출현하고 엄청난 희생을 내면서 대전쟁을 벌이는 시대가 찾아온 것이다. 즉, 프랑스혁명과 나폴레옹전쟁을 통해 국민국가와 국민군의 출현, 그것을 지탱하는 근대 공업과 같은 커다란 시대의 조류가 전쟁의 성질 그 자체를 바꾸었던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인류 역사에서 몇 차례밖에 일어나지 않았다. 앞으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기술의 발달에 의해 전쟁의 성질 자제의 변화도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현재까지 그것은 공상과학(SF)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 작금의 전쟁도 결국은 과거의 스파이나 군인들이 했던 것의 반복처럼 보인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과 다른 패러다임 위에 있지 않으며, 전투의 특징은 다르지만 같은 성질의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당분간 변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된다. 아직 우리는 오랜 근대의 그림자 속에 살고 있고, 그 그림자 속에서 전쟁을 하는 이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느끼게 했다.

V. 러시아의 거만함과 우크라이나의 저항력

이번 전쟁은 러시아의 군사력을 다시 생각해보는 데도 매우 흥미로운 계기라고 생각한다. 러시아 참모본부가 매월『군사사상』이라는 잡지를 내고 있는데, 과거 20년분 정도를 몇 년에 걸쳐 읽어보니,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라이벌은 역시 미국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우크라이나나 조지아 같은 구 소련의 국가가 상대라면 쉽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전제다.

특히, 최근 15년 정도 러시아군 내에서 '신세대전쟁' 혹은 '신형전쟁'이라는 논의가 매우 활발하다(이 두 논의는 비슷하면서도 다르지만, 여기서는 생략한다). 허위정보나 테러, 제한적인 공습 등을 가미하여 상대 국내에서 내란을 일으키면 공적인 전쟁에 의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는 논의다. 이러한 비재래적 투쟁 이론은 구 소련 국가가 표적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2008년의 조지아와의 전쟁, 2014년의 첫 번째 우크라이나침공을 계기로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요컨대 구 소련 제국에 대한 개입 전략이라는 성격이 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전쟁을 시작해보자 이길 수 없다. 허위정보나 사이버전에서 우크라이나는 굴복하지 않았고 전면적인 무력침공에도 불구하고 지지 않고 저항을 계속했다. 이것은 러시아군은 물론 외부 관찰자에게도 예상 외의 전개였다고 생각한다. 우크라이나 자신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역시 우크라이나가 어느 정도 자력으로 싸울 수 있을 만큼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러시아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국민의 사기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우크라이나군은 첫 한 달 동안 커다란 군사적 지원도 없이 버텨 수도 키이우도 제2 도시인 하르키우도 지켜냈다. 서방국가들은 처음에는 냉담했지만, 우크라이나군이 버텨냈기 때문에 3월 말이 되어 유탄포나 장갑차, 방공시스템을 제공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우크라이나의 저항을 지탱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도망가지 않고 머물렀다는 것이다. 국가 지도부에 철저하게 저항한다는 각오가 있었고, 그런 각오를 잘 국민에 전달하는 소통 능력이 있었던 것은 매우 큰 요소다.

반대로 러시아 측은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실력이 없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러시아가 생각하는 질서가 실현되지 않는 경우 힘을 사용해서라도 달성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렇기 때문에 불균형한 군사력을 지녀야 한다면서 불필요하게 자신들의 목을 조이고 있다. 개전 이전 이미 러시아의 국방비는 GDP 대비 2.6%, 연방예산의 15.1%나 되는 약 3조8천억 루블에 달했는데, 2023년에는 추경을 포함해 5조 루블 이상, GDP 대비 4% 가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광대한 국토를 가지고 있고 천연자원도 풍부하며 엘리트의 교육 수준도 높다. 제국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국가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역시 러시아는 제국이 아니라는 것을 참을 수 없다. 러시아의 우파 사상가 알렉산드르 두긴이 1997년의 저서 『지정학의 기초』에서 말한 대로 "축소판이라도 좋으니 초대국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아무리 해도 벗어나지 못한다.

러시아가 그런 환상에서 해방될 때 우리들은 비로소 제대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지는 아주 어려운 문제다.

Ⅵ. 일본에게 있어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번 전쟁은 우리 일본인에게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자국의 안전은 우선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일본 사회에서 아주 논의하기 어려운 주제였다. 여하튼 일본은 침략을 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으며, 그런 반성 차원에서 일체의 군비를 포기한 헌법 제9조를 제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전후형 리버럴 층에게는 군사적 안전보장이라는 생각 자체가 헌법의 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렇다면 실제로 외국이 공격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물음에 대한 리버럴의 대답은 "일본이 세계에서 가치 있는 국가가 되면 공격받지 않을 것이다" "침략을 한 국가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식이 될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논의를 전면 부정하지 않으며, 이상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도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전쟁에서는 전후형 리버럴파의 사고방식이 나쁜 방향으로 현재화해 버린 것처럼 보인다. 즉, "좋은 국가라면 공격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뒤집어 "공격을 받은 우크라이나에는 어떠한 형태이든 잘못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 그런 아류로서 "미국이 러시아를 몰아붙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NATO를 확대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일으킨 것이다"라는 논의도 있다. 이들 모두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지만, 출발점은 "군비를 포기해도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이상을 정당화하기 위한 어디까지나 국내적인 것이다.

다른 하나의 주제는 "침략을 한 국가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즉, "국제사회는 물론 가만히 있지 않지만, 입을 열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이다. 그 사

이에는 자력으로 대처하고 "우리는 도와줄 가치가 있는 상대"라는 것을 세계에 증명해 보여야 한다. 더구나 그렇게 해서 세계가 우리를 도와줄 결단을 하고 나서 실제로 원조가 도착할 때까지 또 더 시간이 걸린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상당한 규모의 심각한 침략에 버틸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될 것이다.

Ⅶ. 안전보장의 딜레마

그렇다고 헛되이 군사력을 확장해 가면 안전해질 것이라고 주장할 생각은 없다. 군사력의 균형이 어느 정도 상태일 때 "안정되어 있다"고 보고 안심할 수 있을지는 보는 시점에 따라 전혀 달라지기 때문이다. 각자가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군비확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폭력을 행사하는 측은 필요최소한의 힘을 행사한다고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감수할 수 없어 대항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처음 폭력을 행사한 측은 적을 없애지 않으면 안심할 수 없는 연쇄가 발생하여 폭력은 이론상 극한까지 에스컬레이트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출현할 무제한의 폭력투쟁을 프로이센의 군인 클라우제비츠는 '절대전쟁'이라고 불렀다.

실제의 폭력행사 즉 전쟁에는 이르지 않지만, 군비확장 경쟁에도 같은 역학이 작용한다. 이것이 '안보 딜레마'로 그것을 피하기 위해 군사력의 투명성을 서로 높이는 신뢰양성조치가 강구되어 왔다. 1990년대의 유럽에서는 유럽재래식무기감축(CFE)조약을 체결해 병력의 범위를 제한하고, 훈련 시 반드시 사전에 통고하고, 1만 3천명 이상을 훈련에 동원할 경우에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모든 가맹국을 옵서버로 초청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그렇지만 이번 사태에서 신뢰양성은 양쪽이 성실하게 노력할 의사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이번 전쟁이 던지는 영향으로

서 앞으로의 안보의 형태를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Ⅷ. 결론

1990년대에는 핵전쟁에 의해 인류의 종이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공존한다는 감각이 있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같은 전쟁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핵무기는 있지만 사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만들어 진다, 그래서 조금 불성실하게 행동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러시아와 중국의 교만함을 용인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혹은 또한 경제, 사회 등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국가는 그렇게 간단히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된다는 논의도 있지만,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는 그러한 공급망을 이용해 자국 군사력을 강화하거나 역으로 상호의존을 무기화해서 서방 측을 묶어 두려는 전략으로 나왔다.

그 결과로서 우리는 지금 군비확장의 연쇄에 휘말리고 있다. 러시아와 접하고 있는 발트 3국이나 폴란드는 이전부터이지만, 다른 NATO 국가들도 국방예산을 GDP 대비 2%이상으로 끌어올리려고 한다. 이러한 군비확장 경쟁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는 군사 논리로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그것은 현실의 정치가 해야 할 역할이다. 그러나, 현대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핵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전쟁을 보고 완전히 과거의 일이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어디로도 사라지지 않았으며, 다만 보이기 어려워져 있었을 뿐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전쟁의 착지점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군사에 착목함으로써 인류가 역사 속에서 극복했다고 생각했던 위기의 한 가운데, 즉 매우 위험한 장소에 우리들이 지금 서있다는 경보를 울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